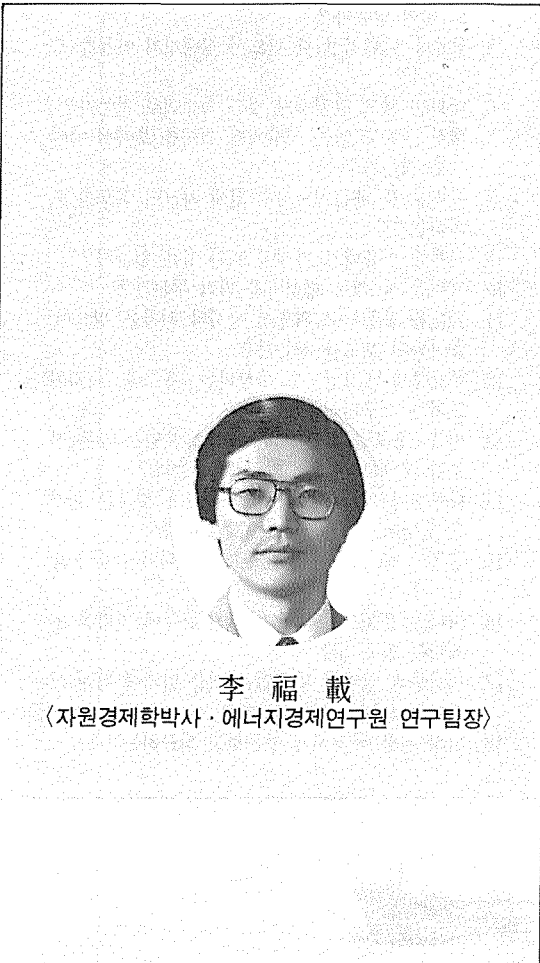


1. 세계 석유시장의 구조적 특성

1. 공급경로상의 애로

- 세계전체의 주요에너지 資源의 확인매장량은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石油 697십억배럴, 천연가스 3, 626兆 立方피트, 石炭 1,018십억톤으로서 가채년수는

석유산업의 발전전략



李 福 載

<자원경제학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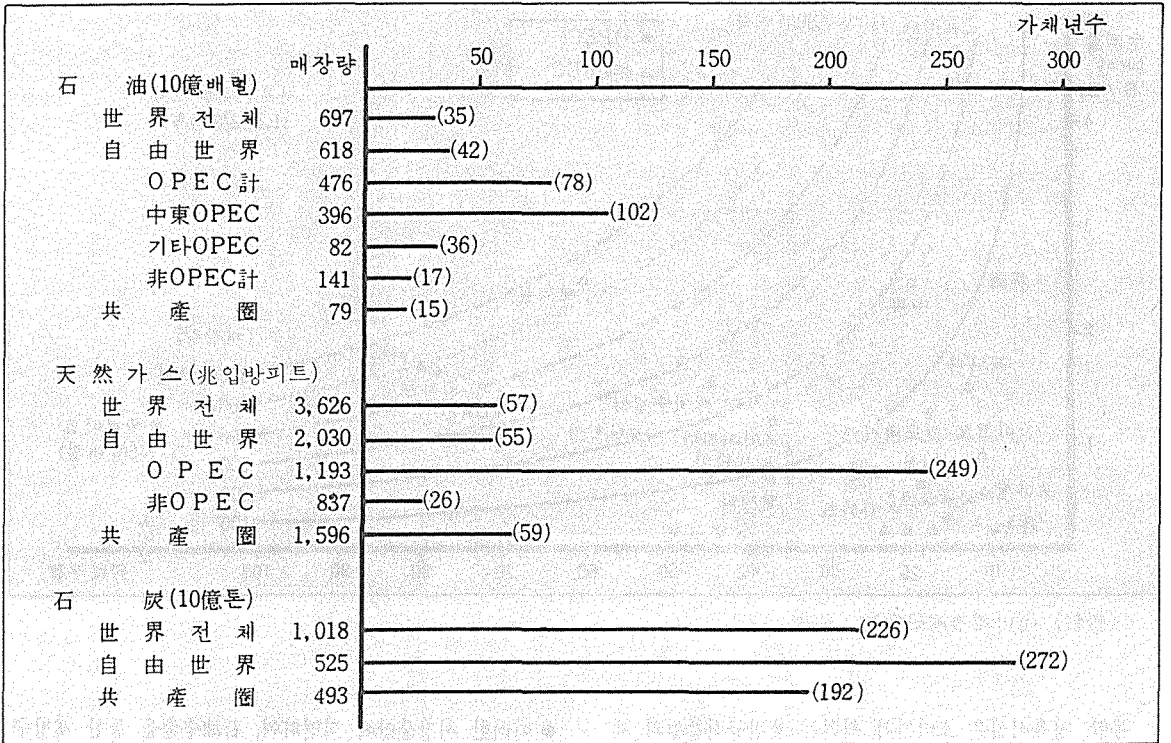
각각 35년, 57년, 226년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확인매장량 기준으로 향후 200여년간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에너지 資源의 물량적인 枯渴(Physical exhaustion)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반면에 <그림-1>은 石油자원의 지역적인 편재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즉 매장량이 100억배럴 이상이면서 가채년수가 30년이상인 국가는 멕시코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OPEC회원국들임. 이 지역적 편재에 대하여서 에너지源間의 단기적인 대체능력이 낮음.
- 결국, 에너지 문제의 핵심은 공급물량의 절대적인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경로상 존재하는 애로로 인한 가격의 불안에 있음. 즉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문제는 물량적인 고갈(Physical exhaustion)이 아니라, 경제적인 고갈(Economic exhaustion)임.

2. 국제油價의 불안정……鑛物資源의 고갈에 관한 재조명

- 1970년대의 세계적인 化石波動을 경험한 이후로 石油燃料의 물량적인 고갈에 관한 염려가 고조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국제油價는 상승하리라는 견해가 형성됨.
- 그러나 石油를 포함하는 광물자원은 근본적으로 枯渴性資源(Exhaustible resource)이 아님. 즉 「地球크기 그 자체의 한계성」으로 인한 窮極賦存

〈表 - 1〉 세계 에너지資源의 부존현황



〈資料〉 에너지經濟研究院, 韓國의 에너지미래(要約), 1987. 8

量(Ultimate resource)의 유한성이 자원생산활동의 제약이 되지 못함. 지구상의 마지막 鑛體(Ore body)에 탐사의 발길이 닿기전에 상승하는 공급비용(探査費+개발비+생산비+수송비+사용비)으로 인하여 해당鑛物資源의 공급은 중단되기 때문임. 따라서 「枯渴性資源」은 공허한 개념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 즉 상승하는 비용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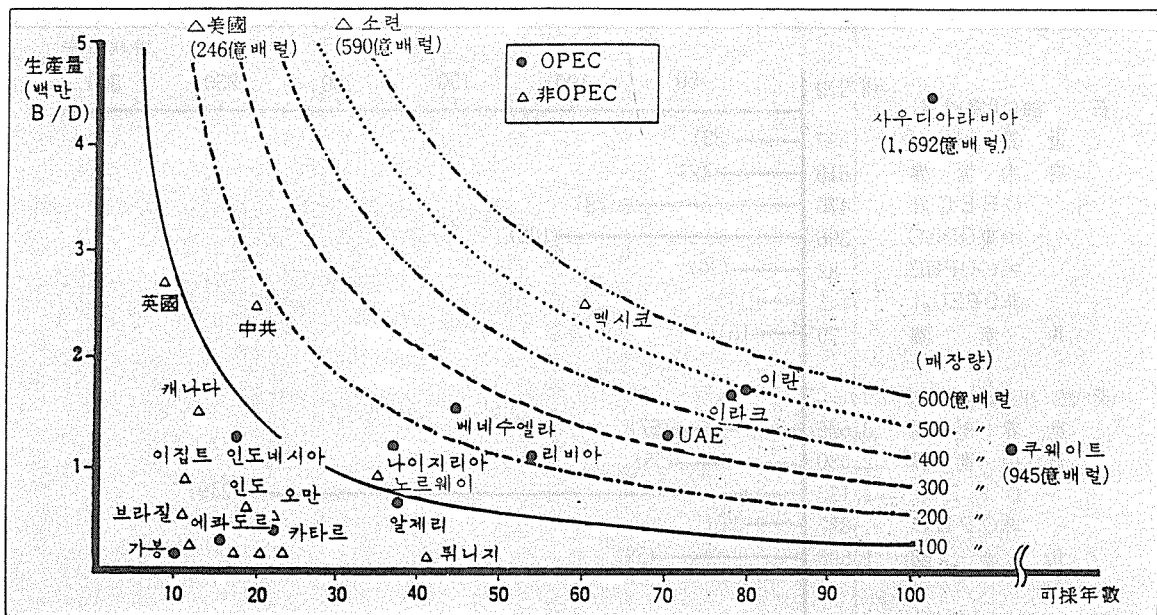
- 결과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油價는 공급의 제단계 즉 탐사(Exploration), 개발(Development), 生産(Production), 輸送(Transportation), 그리고 使用(Consumption)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채감하는 收益(Dimminishing returns)과 이 제단계 및 石油수요(소비절약 및 代替財의 개발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음)에 있어서의 인간의 지혜(즉 기술개발)와의 대결관계의 산물로서 그 향방이 결정되며, 따라서 매우 불확실함. 이 경쟁

관계에서 대개의 경우 勝者는 인간의 지혜이었음.

3. 垂直的 통합(Vertical integration) · 수평적 협력(Horizontal, international coordination)

- 세계 石油시장의 또 다른 구조적 특성은 수직적인 통합관계와 수평적·국제적인 협력관계이며 1970년대 초 이전의 특징이었음.
- 세계 石油시장의 본래적인 불안정을 전제로 할 경우, 原油의 안정적인 공급, 石油製品의 수요전망과 공급계획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가격안정, 그리고 이윤센터의 上·下流部門間의 이동을 통한 이윤증대를 위하여 수직적인 통합관계의 구축이 불가피함.
- 石油製品은 連産品(Joint products), 좀 더 구체적으로 並産品(C-products)이며, 石油製品의 수요는 지역적으로 상이하고 동일지역에 있어서도 계절적으로 변

〈그림 - 1〉 石油資源의 지역별 분포현황



〈資料〉 에너지경제研究院, 前掲書

동함. 정유시설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반규격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정교한 장치(例: Cracking, Reforming, 脱黃裝置 등)를 포함하는 자본집약적인 설비로서 고정비 부담이 매우 크며, 따라서 일정수준의 가동을 유지가 긴요함.

- 이 결과, 균형있는 제품수출의 유지, 변화하는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그리고 규모이익의 향유를 위하여 수평적·국제적인 연합관계의 구축이 요망되며, 이 연합관계를 통하여 지역간의 石油製品 수급균형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1970년대초의 산유국에 의한 石油生産權의 국유화는 종래의 수직적 통합관계를 파괴하였으며, 이후의 점증하는 非OPEC 산유국들의 시장영향력은 산유국들간의 국제적인 수평적 협력관계를 크게 약화시켰음. 이 결과 上·下流部門間의 수급연계관계가 단절되고 지역간의 수급균형이 상실되었으며, 따라서 石油市場 본래적인 불안정이 표출됨. 이에 더하여서 현물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영향력이 증대하여 「꼬리가 개를 흔드는」 상태에 이르렀고, 시장불안은 더욱 심화됨.

- 이러한 시장불안에 직면하여, 石油수출을 통한 재정수익이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안정적인 石油 판매수입을 위하여 下流部門에로의 진출을 통한 수직적 통합관계의 재구축을 기도.
- 이 수직관계의 재구축은 세계 石油市場의 안정을 가져다 주지는 못함. 이 시장안정을 위하여는 수직적인 통합관계에 더하여서 수평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함. 그러나 OPEC와 非OPEC 산유국들 사이에는 물론이려니와 OPEC(석유수출국기구) 산유국들 사이에도 협력관계의 구축이 곤란함. 따라서 世界石油市場의 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2. 국내 석유수급 추이 및 전망

1. 石油소비 추이

- 總에너지와 石油
 - 1970년대에는 정부에 의한 石油의 主에너지源化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總에너지에서 石油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제2차 石油波動 이

후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의 추진과 脫石油電源開發 등 일련의 石油의존도 감축정책이 결실을 보여 石油의 비중은 1987年 44.0%로 감소하였음.

〈表 - 2〉 總에너지중 石油비중 추이

(단위 : 石油환산 톤톤)

	1971	1975	1978	1981	1984	1987
總에너지	20,868	27,553	38,088	45,718	53,319	67,419
石油	10,559	15,637	24,123	25,580	27,629	29,653
石油비중 (%)	50.6	56.8	63.3	58.1	51.8	44.0

● 石油製品 소비

- 국내 石油소비는 1979년을 정점으로 1980년에서 1982년까지 감소하였으며, 1983년부터 다시 증가하였음. 石油소비 증가추세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수송물량과 차량대수 증가, 가정·산업부문의 가스 사용 증가등을 들 수 있음.
- 石油製品別 소비추이를 보면, 수송부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揮發油, 輕油, 제트油 등 中·輕質製品 소비와 石油化學工業用 원료인 나프타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음. 반면 石油의존도 감축정책으로 산업 및發電부문 연료인 B-C油 중심의 重質製品 소비는 급격히 감소되어, 重質製品의 공급과잉이 石油수급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음.

2. 石油공급 추이

〈表 - 3〉 石油製品別 소비 추이

(단위 : 톤배럴)

	1979	1982	1985	1986	1987	1983-1987 연평균증가율 (%)
總計	183,871	178,893	189,891	200,591	210,510	3.3
에너지油	158,893	149,276	145,488	149,999	154,367	0.7
中·輕質製品	59,439	58,003	73,646	82,103	91,128	9.5
重質製品	99,454	91,273	71,842	67,896	63,239	△ 7.1
가스 (LPG)	3,331	7,224	14,247	17,585	21,216	24.0
非에너지油	21,647	22,394	29,456	33,007	34,927	9.3
나프타	19,229	19,871	26,164	29,672	31,613	9.7
其他	2,418	2,523	3,292	3,335	3,314	5.6

● 原油도입

- 原油도입 지역은 1970년대에는 OPEC, 특히 中東지역 회원국들에 의존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선다변화 정책으로 OPEC와 中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음. 최근 들어 중동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 石油市場의 안정과 더불어 中東 대비 추가운송비 지원을 도입국가의 매장량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石油매장량 1백億배럴 이상 규모의 大産油國으로부터 도입시는 추가수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그 이하 규모의 산유국에서 도입시는 70%만 지원.

〈表 - 4〉 原油도입의 OPEC 및 中東의존도

(단위 : %)

	1978	1982	1984	1985	1986	1987
OPEC	100.0	95.9	73.5	66.6	67.7	67.1
中東	100.0	76.0	66.5	57.0	60.5	64.1

- 原油도입의 형태별 추이를 보면 제2차 石油波動 이전까지는 全량을 장기계약에 의존하였으나, 국제 石油市場이 안정됨에 따라 현물시장의 도입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음. 특히 1986년에 現物市場의 도입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OPEC의 시장점유율 확보 정책에 따른 原油價 급락으로 精油社들이 현물시장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임.

〈表 - 5〉 도입형태별 原油도입 구성비

(단위 : %)

	1981	1983	1984	1985	1986	1987
長期契約	97.4	80.4	68.4	57.1	39.4	44.7
G-G	33.5	10.4	5.9	0.5	-	-
D-D	28.1	56.6	53.4	51.1	38.4	36.7
메이저	35.8	13.4	9.0	5.5	1.0	8.0
其他	2.6	19.6	31.6	42.9	60.6	55.3
現物	2.6	6.5	17.6	25.6	42.4	38.8
賃加工	-	13.1	14.0	17.3	18.2	16.5

● 精製能力 및 가동율

- 原油정제능력은 1980년대 초까지 크게 증대되어 왔으나, 石油수요의 감소에 따라 정제시설 가동율은 1970년대 거의 90%이던 것이 1982년에는 60% 수준까지 저하되었음. 그후 賃加工 原油처리량의 증대로 1987년에는 73% 정도가 되었지만, 適正 가동율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임.

〈表 - 6〉 精製能力과 가동율

(단위 : 천B/D, %)

	1976	1979	1982	1985	1986	1987
精製能力	440	580	790	790	790	790
가동율	86.2 (86.2)	86.4 (86.4)	60.0 (56.6)	69.7 (58.9)	72.7 (59.1)	73.2 (60.4)

〈註〉 ()안은 賃加工處理量 제외시의 가동률임

● 石油製品 생산

- 石油製品別 생산은 소비의 輕質化 현상에 맞추어 輕質製品 생산비율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정제시설의 개체보다는 주로 輕質製品의 수출이 높은 輕質原油의 투입을 증가시켰기 때문임.

〈表 - 7〉 輕·重質製品의 생산비율 변화

(단위 :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輕質製品	48.2	50.1	53.3	57.6	58.0	58.4
重質製品	48.9	46.7	43.5	38.8	37.3	36.3
가스類	2.9	3.2	4.2	4.6	4.7	5.3

3. 石油수요전망

- 国内 石油수요는 6차계획기간중 연평균 8.4%씩 증가하여 1991년에는 299,700천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는 이기간중의 總에너지 수요 증가율인 6.7%를 상회하는 것이며, 이에따라 總에너지중 石油의존도는 1987년의 44%에서 1981년에는 50%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 産業부문의 石油수요는 간접가열용 보일러의 유연탄 사용 증가와 低에너지型 산업구조로의 개편으로 他 부문에 비해 낮은 수요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수송부문의 石油수요는 6차 계획기간중 연평균 9.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특히 자가용승용차 급증으로

〈表 - 8〉 부문별 石油수요전망

(단위 : 천배럴)

	1986	1987	1991	연평균증가율(%) 87-91(88-91)
計	200,591 (100.0)	210,506 (100.0)	299,700 (100.0)	8.4 (9.2)
産業	83,898 (41.8)	90,866 (43.2)	109,945 (36.7)	5.6 (4.9)
輸送	54,664 (27.3)	65,644 (31.2)	84,695 (28.3)	9.2 (6.6)
家庭·商業	28,040 (14.0)	32,623 (15.5)	62,646 (20.9)	17.4 (17.7)
公共·기타	13,671 (6.8)	13,783 (6.5)	16,322 (5.4)	3.6 (4.3)
發電	20,336 (10.1)	7,591 (3.6)	26,093 (8.7)	5.1 (36.2)

〈表 - 9〉 제품별 石油수요전망

(단위 : 천배럴)

	1986	1987	1991	연평균증가율(%) 87-91(88-91)
計	200,591	210,506	299,700	8.4 (9.2)
揮發油	8,557	10,353	15,790	13.0(11.1)
燈油	7,985	8,156	8,859	2.1 (2.1)
輕油	57,138	63,536	86,208	8.6 (7.9)
B-C油	64,792	59,579	93,479	7.6(11.9)
제트油	8,422	9,082	11,895	7.1 (7.0)
L P G	17,586	21,216	32,318	12.9(11.1)
나프타	29,671	31,613	41,069	6.7 (6.8)
기타	6,440	6,979	10,082	9.4 (9.6)

揮發油 수요는 이 기간동안 연평균 14.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家庭·商業부문은 연료고급화 추세와 최근에 계속된 石油製品가격 인하로 6차 계획기간동안 연평균 17.4%의 높은 수요증가가 예상됨. 製品別로는 취사용 LPG와 중앙난방용 B-C油가 높은 증가추세를 보일 것임.
- 1987년에 크게 감소되었던 發電부문의 石油수요는 民需用 LNG수요 증가에 따른 LNG發電의 감소를 반영하여 큰 폭의 수요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發電부문에서의 B-C油 수요증가로 重質製品의 과잉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3. 석유산업 정책방향

1. 효율적인 石油공급체계의 구축

- 前述한 바와같이, 세계 石油市場에서의 油價는 향후 上·下 양방으로 불안정할 것으로 예견되며, 국내 에너지市場에서는 石油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고 石油製品 수요의 輕質化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國際油價의 변동을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이 변동이 국내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국내油價를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의존도가 증가하는 石油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하며, 변화하는 石油製品의 수요를 최소의 비용으로 충족시키는 低價·안정적인 즉 효율적인 石油공급체계의 구축이 요망됨.

2. 국내 石油産業의 경쟁력 제고

- 石油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石油産業의 全部門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
 -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精油部門 중심의 현행 정부규제는 이 부문으로 하여금 損失擔當部門(Loss leader)이 되게 하여 비용절감 노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 최고판매가격의 告示와 이윤통제는 精油會社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
 - 평균비용 중심의 가격통제는 평균비용의 증가와 함께 어느 한 회사의 비용증감이 他社의 이윤증감을 초래하는 외부효과가 있음
 - 전국균일 수송비의 책정은 지역적인 市場細分化(G-

eographical market segmentation)현상을 초래하여 시장의 경쟁도를 저하시킴.

- 과도한 정부의 諸稅·公課金도 精油社의 효율적인 경영노력에 도움을 주지 못함.
- 따라서 정부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국내 石油産業의 경쟁산업화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강력한 동기를 시장참여자에게 부여함. 그리하여 강력한 산업기반을 구축,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며 경쟁의 이익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함.

3. 危機對應能力의 제고

- 세계石油市場의 구조적 특성, 즉 石油資源의 부존이 정치적·군사적으로 불안한 지역에 편중된 점, 수송경로상의 예로, 산유국들간에는 물론 石油輸入國間에도 국제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점, 이에 더하여 現物市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경로상의 장애요인 발생 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한 國際油價의 급등가능성은 상존함. 따라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요망됨.

4. 향후 추진 정책과제

1. 효율적인 공급체계의 구축

- 上流部門 진출
 - 국내외 油田開發사업에의 국내회사 참여는 上·下流部門間의 垂直的 통합관계의 구축을 통하여 에너지의 長·短期 공급계획과 수요전망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수급의 안정에 기여함.
 - 이 수직적인 통합관계는 國際油價의 변동을 上·下流部門間에 분산 흡수함으로써 이 변동이 국내油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國內社의 이윤센터를 兩 부문간에 이동시킴으로써 國際油價의 변동이 회사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
 - 투자위험의 극소화를 위하여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개발, 탐사의 순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제적으로 大石油會社나 대자본가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소망스러움.

● 原油導入先 및 도입방식의 효율화

- 1990년대 후기부터는 OPEC회원국 중에서 中東國家 및 리비아, 베네수엘라와 非OPEC 國家중에는 멕시코, 노르웨이등 만이 수출여력을 갖게 되며, 선진공업국의 石油生産 능력은 점차 감소되어 原油구매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단순한 도입국가수의 증가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정수준의 基底(base) 導入先을 확보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導入先 多邊化의 일환으로서 자원이 풍부하고 거리가 가까운 中共과 蘇聯(極東지역)으로부터의 原油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原油도입은 장기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現物市場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原油도입의 경제성을 제고시키며, 장기계약에 의한 도입도 가능한 한 저렴한 現物價와 연동시킴으로써 低價 안정도입을 기하도록 함.

● 精製施設의 고도화 및 적정규모의 유지

- 石油製品 수요의 輕質化에 따른 제품간의 수급불균형은 단기적으로는 輕質原油의 투입, 수요구조 변화 속도의 완화, 제품의 수출입등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분해시설의 설치에 의해서만 가능함.
- 이 경우 重質油 分解施設과 脫黃裝置에 대한 과잉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石油製品 수급구조의 변화추이에 맞추어 적정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精油社間에 투자계획을 상호조정할 필요가 있음.
- 精製施設의 고도화 및 적정규모의 유지를 위하여는 국내 제품수급 상황에 적합한 관련기술, 例로서 重質油 分解技術, 코크스등 副生 低質 殘渣油의 이용기술, 에너지 절약기술, 그리고 工程副産物의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이 重質油 분해시설은 石油製品의 連産性(並産性)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변화하는(계절적, 기간적) 製品 수요구조에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급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며, 동시에 精油施設에의 投入原油의 품질범위를 넓혀서 精油社의 原油선택의 여지를 넓혀주고 輕質製品의 생산수율

을 높임으로써 精油社의 이윤증대에도 기여함.

● 長距離 送油管 건설

- 전술한 바와 같이, 石油製品 수요의 輕質化 현상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輕質製品에 대한 수요는 주로 대도시 특히 首都圈 지역에 형성될 전망이다.
- 이에 반하여 精油工場은 輕質製品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울산, 온산, 여수 등)에 편재함으로써 지역간의 製品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石油製品의 원거리 수송이 절실히 요청됨.
- 遠距離 수송수단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단인 송유관은 그 건설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국가의 재정지원능력 및 수요구조의 변화추이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건설함이 바람직함.
- 이 장거리 송유관의 설치는 가장 저렴한 장거리 수송수단인 製品의 低價 및 안정적인 공급에 크게 기여함.

● 多燃料 연소장치의 설치

- 이 장치는 연료 소비자에게 연료선택의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며, 동시에 연료간의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보다 값싼 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줌.
- 例로서 美國 산업부문에 있어서 二重燃料 燃燒裝置(Dual-fired boiler)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산업부문의 平均購入價格보다 더 低廉한 가격으로 天然가스를 구입함(산업부문의 燃料購買者들이 他部門의 구매자들보다 연료 구입가격이 낮은 것이 보통임).

● 경제적 비축 및 先物市場의 활용

- 정부에 의한 國內油價의 통제가 해제될 경우, 國內 石油産業의 불안한 國際 石油市場에의 露出度는 증가하게 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경제적인 비축이 先物市場의 활용이 필요함.
- 이 경우 경제적인 비축은 정부책임하에 운영되는 公共財 성격의 전략비축과는 구분되어야 함. 先物市場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精油會社 및 관련회사들에 의한 전문가의 양성이 긴요함.

● 環境오염에의 대응

- 環境汚染, 특히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低硫黃油 및 無鉛揮發油의 생산을 적극 추진하는등 정부의

- 기본적인 정책은 汚染물질 방출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것임.
- 그러나 깨끗한 환경에 대한 수요곡선인 限界 被害曲線(Marginal damage curve)과 供給曲線인 限界 統制費用曲線(Marginal control cost curve)의 도출이 매우 어렵고 따라서 극히 불확실함.
 - 限界被害曲線이 매우 비탄력적일 경우, 즉 공해가 심할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汚染源에 부과하는 세금(Tax)보다 限界被害曲線의 불확실성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임.
 - 반면에 限界被害曲線이 탄력적일 경우, 즉 공해문제가 별로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이 규제보다 동일한 의미에서 효율적임.
 - 따라서 지역적으로 세분화해서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규제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동일지역에 있어서도 환경오염의 심각도가 완화됨에 따라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규제로부터 汚染源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

2. 국내 石油産業의 경쟁력 提高

● 油價規制 완화

- 현행 油價管理制度는 제반 규제 조치로 인하여 국내 石油會社들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함으로써 경쟁력을 저하시킴.
- 따라서 규제의 해제가 필요하며 급격한 해제시 막대한 사회적 조정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단계적인 해제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단계적인 규제 해제 방안

1단계 : • 換率連動制

- 국내 油價구조의 國際價 구조에로의 접근 및 石油관련 세제 개편

2단계 : • 국제油價 連動制 (국내製品 가격을 國際市場 製品價格 또는 原油價에 연동시킴)

3단계 : • 油價규제의 해제 (국내油價의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김)

● 제반투자에 관한 규제 완화

〈精油業〉

- 점진적으로 신규參入 제한요인 제거

1단계 : 施設改造 허가제 폐지

2단계 : 增設 허가제 폐지 (전제 - 국내油價의 국제수

3단계 : 新規參入 자율화 준 유지)

〈石油 流通業〉

• Pole Sign제 도입

- 代理店 및 주유소의 허가기준 설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유통부문 참여제한의 점진적 완화

● 石油輸出入에 관한 규제의 완화

- 단계적 규제해제

1단계 : • 賃加工原油 및 現物原油 도입 승인제 폐지

- 분기별 수입계획 및 신고제 폐지

2단계 : • 輸出推薦制 폐지

- 原油도입 승인제 폐지

3단계 : • 輸入推薦制 폐지

- 규제해제 先行필요조치

- 정부 비축량 증대
- 수출입자에 대한 자격요건 부여
- 「消費地에서의 精製」에 대한 수정 보완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여건 조성

-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제한적인 행위 내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함.

- 參入防禦壁(Entry barrier)을 구축한다든지, 제품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他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시장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행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등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있게하고 그 경쟁의 이익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함.

3. 危機 대응능력의 제고

- 국제 石油市場에서 중대한 공급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함.

- 그 一環으로서 비상시 石油수요 감축방안의 수립, 원료 전환능력의 제고, 비상시 精油施設의 운전계획의 수립, 石油製品 수송방안, 그리고 정부의 戰略備蓄 운영이 있음. 또한 國際機構(IEA, PECC등)를 통하여 他 수입국들과의 공동대처 方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 산유국들과의 외교 및 경제 협력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